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인도의 'My Way' 외교

이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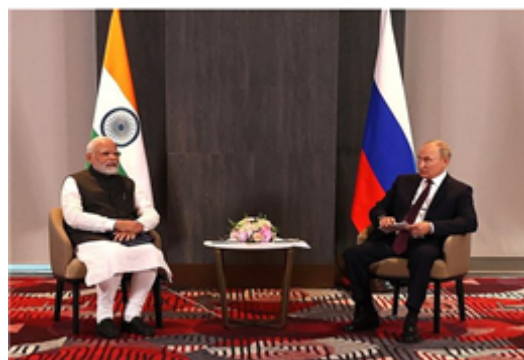
박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geomdosa@gmail.com

2022년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과열된 경쟁 속 인도의 'My Way' 외교가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중·러 삼국이 엮어내는 국제질서 재편 구도에서 편승외교, 균형외교, 헤징외교, 네트워킹외교의 현란한 조합을 통해 자신의 몸집과 지정학적 존재감을 한층 키워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말로만 협력하는 미국보다 정확히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러시아를 선택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러·인 협력의 역사적 연원

러시아와 인도의 전면적 협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에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해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소련은 1962년 중국과 국경 전쟁을 치른 인도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원했다. 1964년 중국이 핵 실험에 성공하자

인도 역시 핵 개발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무려 30년 동안 인도에 핵 개발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반면 인도에 적대적인 파키스탄의 핵 개발은 묵인했다. 결국 파키스탄은 1974년 핵무기를 손에 쥐었다.



푸틴-모디 러·인 정상회담

소련의 이런 우호정책에 인도도 보은 외교로 화답했다. 1956년 소련이 헝가리 혁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을 때도,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짓밟았을 때도,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인도는 공개 비난을 자제했다. 2000년대 초

제2차 체첸전쟁에서 러시아의 ‘부적합한 무력 사용’을 비난하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러·인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외교전에서 단 한 차례도 크렘린을 공개 비난하지 않았다. 인도 여론은 대체로 자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며, 야당조차 모디 총리에게 러시아의 고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영을 넘나드는 인도의 ‘My Way’ 외교

과거 냉전시대 인도는 비동맹 외교노선의 대표주자였다.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제3세계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1955년 반동 회의를 시작으로 비동맹의 좌장 노릇을 하며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도의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인도는 서구를 겨냥해 중·러가 결성한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의 회원국이며,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한발 걸치고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제재의 ‘구멍’을 내주고 있다. 원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는 에너지 수출 제재로 수요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대량 구매함으로써 실리까지 챙기고 있다.

인도의 내 편 네 편 없는 외교행보

미국과 서방측 가담

- 쿼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안보대화체)
-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쿼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군사훈련 말라바르
- 미국과 인도 북부에서 고지대 전투 훈련

중·러시아 가담

- 브릭스(BRICS)
- 상하이협력기구(SCO: 중·러 참여 8개국 국제협의체)
-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 등이 참여한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 참여
- 서방 우려에도 러시아산 원유수입 확대

출처 : 『세계일보』, 2022년 10월 8일자.

최근 인도는 비동맹 노선에서 벗어나 자국 버전의 실용주의를 앞세워 국제적 위상 강화와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동시에 흑해 곡물운송 협상, 자포리자 원전 포격 사건 등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주요 국제 현안에서 막후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상 중재국의 입지도 넓혀 가고 있다.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도, 안보와 실리적 국익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의 이런 독특한 ‘My Way’ 외교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인도 외교정책의 시사점

남아시아 패권국 인도는 국익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왔고, 그럼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활동 반경을 꾸준히 넓혀왔다.

협력의 성격이 전혀 다른 SCO, BRICS, QUAD, IPEF 가입 등이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인도는 국익 증진을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이슈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지정학적 경쟁국 또는 대결국가와도 협력을 마다하지 않

고 있다. 이런 외교적 포지셔닝이 인도를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위상이 인도와 다르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대외정책 핵심 아젠다로 내세운 윤석열 신정부가 진영을 넘나드는 인도의 스펙트럼 외교에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외교적 포인트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동맹 일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익우선의 실용주의도 한국외교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이제 한국 버전의 실용주의를 고민할 때다.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